

자랑스러운 성결교회, 비전 품고 도약하는 성결교회



유지재단 이사장 류제곤 목사

교단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성 가족 여러분!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공포와 계엄해제의 안도, 그리고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등 뒤숭숭했던 한 해가 지나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새해가 되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다시 열리는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여러 감정으로 벅차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정치, 경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맞물려 힘들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정국의 어수선했던 일부 기독교인들이 합세하며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명분을 앞세워 말 파편들을 주워 모아 SNS 등을 통해 유포하며 교계에 혼란을 부추겼기에 교회들도 녹록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이 어렵지만 현명하게 넘어서서 슬픔이 트이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지재단은 교단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회와 지교회 및 산하기관의 부흥산과 시설은 물론 수리하고 재정도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나 익숙한 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주저 없이 나아가지만 낯선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멈추지 않는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한 단 라는 말을 교훈 삼아 그동안 이사회에서 결의 해둔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변화를 시도하는 유지재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선교관을 허물고 주차장을 신축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므로 총회를 방문하는 예성 가족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이 확보된 이후에는 총회 본부 건물을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총회장실, 기념관, 회의실 등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여 교단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총회 본부 건물이 성곽과 인접해 있기에 분화재정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에 인허가 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관계기관에 발품을 팔며 가능성을 타진해왔기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딛으려 합니다. 유지재단이 작게나마 교단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유지재단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선임 이사장님들과 이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지재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중복음회관 임대 수입금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지는 예성의 미래를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회장님과 임원회, 더 나아가 실행위원회, 부서장께서 선전해 주시는 해외선교사와 작은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시는 목회자들의 노후를 위해 언급 지원과, 예성 목회자로 평생 교회를 섬긴 후 은퇴하셨는데 은퇴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좋은 마음은 언제나 나쁜 마음을 이긴다고 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신뢰가 탄탄히 쌓이면 새로운 기회는 분명 열릴 것입니다. 예성 가족 여러분! 이렇게 기본 좋은 시도가 길지 않은 시간에 결과로 증명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2025년 새해를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성 가족 여러분! 이렇게 기본 좋은 시도가 길지 않은 시간에 결과로 증명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2025년 새해를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급재단 이사장 민중기 목사

성장과 안정을 기반으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2025년 새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우리는 함께 힘 모아 함께 가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며 힘을 모아 힘찬 새해를 열어 갑시다. 은급재단은 2024년도에 꾸준히 안정적인 성장해 왔습니다. 점차 은급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가입과 가입급액을 늘려 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급액을 늘려 가시는 분들과 고액 납입으로 납입금이 2~3억에 이르는 가입자가 여러분 생길 수 있는 예측이 있으므로 은급재단에서는이사회를 통하여 임시금 납입액과 1억을 넘기시는 가입자분들을 부득이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급을 신뢰하시고 노후 대책을 전적으로 은급에게 맡겨주시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은급은 미래를 예측하고 은급 고값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이러한 대책을 세우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급의 고민에 가까이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성남에서 복회하시는 모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2024년도에 은급재단은 기금의 안정과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감사 2분회(계사와 세무사)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단의 감사는 계속 안정적으로 노브랜드라는 업체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후안동 상가도 전 층이 임대되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성장하는 은급은 앞으로 기금이 고갈되어 은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에 은급재단 이사들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컨설팅에 투자된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김정일 이사 <투자금 회수 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미래 은급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이종만 이사가 소위원장을 맡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급운영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상근직이던 사무국장을 비상근으로 전환하여 대폭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후임 사무국장으로 나현도 목사(은강교회)가 맡아 열심을 내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도 잘 진행되어 언제 어디서나 휴대 전화를 통해서 은급재단을 검색하시면 은급 상황과 개인의 가입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나 은급 상황을 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은급은 한층 더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2025년을 달려가겠습니다. 국내 어려운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은급의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를 유지재단과 교단 여러분들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성 동역자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심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결대학교 총장 김상식 목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성결대학교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결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대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로운 차원의 미래를 열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어려운 도전 또한 믿음과 연합으로 극복할 때, 성결교단은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새로운 부흥의 길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더욱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결대학교는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실무인재 양성 대학'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창의융합 플랫폼 구축, 산·학·연 협력클러스터 육성, 글로벌 교육 생태계 강화, 대학 지속성장 기반 조성 등 목표로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GMI 창의융합 인재양성', 'IR 4.0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 '지역사회 상생·협력 선도 인재양성'을 위한 3대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더 나아가 스마트시티, 스마트관광, AI·빅데이터, XR(AR/VR) 등, 후면서비스, 지역사회문화예술포럼 등 8대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선도하며, 지난해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 '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하고, K-콘텐츠 융합전공 신설과 몰입형 XR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미래형 교육 전략을 착실히 실행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육혁신 분야에서 최우수등급(S)을 획득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IRIS) 사업 성

공을 목표로, 경기도와 안양시, 지역 대학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결대학교는 지난해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EQAS)에 선정되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성 교단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본교의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은 교단 미래목회자 양성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 교수, 교단 목회자로 구성된 '신학대학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구체적인 과제(학생 모집, 멘토링, 목회특강, 목회실습, 사역자 데이터베이스화, 영성훈련 강화 등)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학대학원 지원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단과 대학의 긴밀한 협력의 열매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단 목회자 수급 확대를 위해 두 가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본 교단교회의 교회학교에서 신학대학 장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추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장년 평신도를 대상으로 현장 집중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한 신학교육을 실시해, 교육전도사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대안은 목회자가 부족한 교회, 특히 지방 교회에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학령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결대학교가 기독교 명문사학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6회 평생교육원 목회자 및 목사안수대상자 평생 교육과정

● 주제 : Let's Reconnect!(요 17:21)

● 일시 : 2025. 1. 20(월) ~ 22(수)

● 장소 : 스플라스 리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3로 45-7 ☎041-333-8000

● 회비 : 1인당 200,000원

조직

- 원 장 : 총회장 김만수
- 부 원 장 : 목사부총회장 홍시진 정무부총회장 이 전
- 사 무 총 장 : 총무 권순달
- 자 문 위 원 : 서기 이영화 부서기 김정은 회의록서기 전승환 회계 최옥창 부회계 박정식
- 협력 위 원 : 전승학 서규환 김영구 심상훈 신현걸 박희서 손준기 전은희 박정택 임흥근 허수경 박길영 박양선 이길우 이육현 구자신 문영규 문성호 송기정 이광현 이천의 김진호 반재신 차원영 이영형 조철수 안일상 노희성 문승균 이윤영 이종석 허 정 객중원 이명선(지방회 기나디순)

- 진행위원장 : 교육부장 김성철
- 총무부과장 : 김홍식 부분과장 류형창
- 예배분과장 : 염두선 부분과장 양승용
- 의전분과장 : 고신원 부분과장 서경원
- 운영위원장 : 교육국장 안원호
- 운영스텝 : 김덕중 한중우 이순영 강신배 방길주 강문선 류인영 조은총 김상윤

강의 / 강사 개요

- 1. 세미나 1(세종 꿈의 교회) / 안희록 목사
- 2. 세미나 2(신학 세미나) / 성결대학교
- 3. 세미나 3(기독교 변증) / 박명룡 목사
- 4. 세미나 4(2025년 목회 트렌드) / 지용근 대표
- 5. 세미나 5(올바른 조직 문화) / 이현실 대표

협조사항

한정 92조 4천에 의거 5년에 2회 이상 미 이수 시 총회대원이 될 수 없음

교육방향

- 금번 36회 목회자 평생교육은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변화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집중'이라 생각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 하나님과 연결됨을 재장비하고, 동료 목회자들과 연합을 재장비하고, 사회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재장비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
-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뛰어넘어 복음으로 다시 시작한다.

교육일정

시간	1월 20일(월)	1월 21일(화)	1월 22일(수)
06:00	Quiet Time(개인적으로)		
07:00	아침 식사		
08:00	Tea Time		
09:00	세미나 2 신학세미나 (성결대학교)	세미나-15 이현실 원장 (안희록 지방 대표)	총장 예배
11:00			
12:00	점심식사		
13:00	지방회별 모임	세미나 3 박명룡 목사 (기독교 변증 대표)	기자의 초대로...
14:00			
15:00			
16:00	가담예배		
17:00	저녁식사		
18:00	Tea Time		
19:00	세미나 1 안희록 목사 (세종 꿈의 교회)	세미나 4 지용근 대표 (예비 목회연구원)	기자의 초대로...
20:00	지방회별 모임		
21:00	취침		
22:00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평생교육원장 김만수 목사